

그리스 시대의 남성복과 여성복에 표현된 젠더(gender) 특성 분석

이 명 희 · 최 윤 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alysis on Gender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ale and Female Costume During the Ancient Greek Age

Myoung-Hee Yi · Yoonmi Choi⁺

Doctori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12. 30, 심사(수정)일: 2013. 2. 18, 게재확정일: 2013. 3. 20)

ABSTRACT

Ancient Greece was a patriarchal society that distinguished gender roles between men and women. Although their costumes were composed of simple rectangular fabric without any technical complications in itself, the Greeks did try to express gender differences in their clothing. The final look of the Greek costume was dependent on the way the cloth draped onto its wearer as well as the wearer's identity. Greeks costume could just be seen as a rectangular fabric when it was not draped on a person's bo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ender differences were expressed in the ancient Greek drapery costume, which was made by using a completely different technical process, compared with the modern tailored costume. There are four elements of the costume that give the costume its formative shape, which are the wearer's body, the rectangular fabric (material as the first formative costume), the way the fabric is draped, and the final appearance as the second formative costu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rer's body and the costume) and this study analyzes these elements individually.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gender characteristics and how each element appears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ism, an analytical method that considers a phenomenon as a total sum of the elements.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nd representative sculpture, painting and pottery, were used between the Archaic Period (B.C. 800~500) and the Classical Period (B.C. 500~323).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der differences appear in each formative element of costume: First, the body was distinguished by the ancient Greek custom. The man's nudity was accepted while the woman's body was concealed. Second, in regards to the first formative costume, which was the rectangular fabric, men's were made with thick high quality wool because their involvement in outdoor activities meant that they needed clothes to stay warm, while the women wore clothes made of thin wool or hemp cloth, because their most of their activities were at home. Third, the way to drape the fabric shows the gender differences by changing the length

of the clothing and its design ; men's short *khiton* was practical for big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clothing exposed the man's body. The woman's *doric khiton* diversified its decoration by the size of the *apotigma* and by using the belt. Finally the second formative costume reflected the Greeks' social distinction between a man's body and a woman's body. The man's costume naturally exposed the man's body. On the other hand, the woman's long costume has a variety of shapes on the ground, that concealed her lower body, while the ornamental function was more accentuated than the man's costume. The gender differences expressed in Greek costume fundamentally reflected the point of view of the male and female body and their social roles in society.

Key words: body(몸), gender (젠더), Greek costume (그리스 복식),
the first formative costume(1차조형복식), the second formative costume (2차조형복식),
way to drape(걸치는 방식)

I. 서론

특정 복식을 착용하는 사회에서 복식을 걸친 몸은 사회화된 공적인 몸이다. 복식에 나타난 성 구분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젠더(gender)를 드러낸다. Butler¹⁾는 젠더를 “본질의 외관, 자연스러운 듯한 존재를 생산하기 위해 오랫동안 응결되어온 매우 단단한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된 몸의 양식화이자 반복된 일단의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가부장제 사회인 그리스에서 남녀의 몸을 각각 어떻게 양식화하여 젠더를 드러내고 있는지 복식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표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양 복식 상에 드러난 성 구분의 초기 양상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재단과 재봉이 배제된 그리스 드레이퍼리 복식은 착용자의 몸을 떠나서는 성별의 차이가 모호해 진다. 벗어놓은 상태의 남성복과 여성복은 그저 크기가 다른 사각의 천이다. 이민선·김민자²⁾는 그리스 로마 복식을 남녀 공용 복식으로 보았고 그리스는 이데아의 반영인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복식에 남성적 혹은 여성적 이미지의 강조보다 인체의 조화로운 비례에 주안점을 두는 드레이퍼리로써 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긴 키톤(chiton)과 외투인 히마티온(himation)은 남녀 공용 복식이지만, 남성용 짧은 키톤과 육체노동자의 에그조미스(exomis), 군인의 클라미스(chlamys)와 같

은 전형적 남성복과 다양한 여성의 도릭 키톤에서 드러나는 성별에 따른 복식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젠더(gender)를 중심으로 패션 현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 최나리·우주형³⁾, 김정연·제갈미·이연희⁴⁾, 이경아·금기숙⁵⁾이 있고 현대에 나타난 복식 현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류기주⁶⁾는 복식을 인체 위에 표현되어 입체적 형태를 갖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보고 복식 형태의 분류체계를 세우고자 복식형태의 구성요소를 인체의 형태, 1차 조형 복식, 착장방식, 2차 조형 복식(착장 후 인체와 1차 조형 복식과 관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의 틀로 류기주의 복식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그리스 복식을 인체, 1차 조형 복식인 사각형의 천, 착장 방식 즉 드레이핑 방식, 몸 위에 입혀진 상태의 2차 조형복식으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에 따른 젠더(gender)구분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 그 요소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는지, 완성된 복식의 형태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 복식의 구조를 이루는 몸, 1차 조형 복식, 착용 방식, 2차 조형 복식에 따라 각각 남성복과 여성복의 젠더 표현 특성을 분류 서술한다.

둘째, 네 가지 각 요소에 나타난 젠더 차이를 만드는 일정한 규칙과 요소의 총합으로서 2차 조형복식에 나타난 젠더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그리스 복식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구조를 이루는 규칙과 관습이 무엇인지 밝힌다.

연구 방법은 서양 복식사 및 고대 그리스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문헌을 대상으로 그리스 복식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분석 시기는 그리스의 알카익 시대(Archaic Period, 기원전 800~500)와 고전 시대(Classical Period, 기원전 500~323)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단, 알카익 시기와 고전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많이 훼손되었거나 소실되어, 기록에 의해 로마 시대에 재건된 예술 작품은 자료로 채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연구의 바탕이 되는 두 가지 중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근대의 테일러드 복식과 다른 제작 과정을 거치는 그리스 복식 형태 분석의 틀을 설명하고, 둘째는 성 구분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스 사회의 몸에 대한 인식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나체 관습을 다루고자 한다.

1. 복식 형태 분석의 틀

형태는 복식의 외적 형식을 이루는 조형요소이며 복식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복식사 연구의 양식적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⁷⁾ 류기주는 복식 형태의 분석을 “하나의 현상을 가능한 작은 요소 내지 단위로 분해하여 현상 자체를 그 단위의 법칙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다시 파악⁸⁾”하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와 그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小川安朗은 복식형태를 복식과 인체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재료인 옷감이 의복으로 만들어진 상태인 1차 조형 복식과 1차 조형 복식이 몸 위에 착장된 2차 조형 복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류기주⁹⁾는 선행 연구의 분류체계를 종합하여 복식의 형태를 인체, 1차 조형 복식, 착장 방식, 착장 후 인체와 1차 조형 복식과의 관계로 나누었다. 1차 조형 복

식의 형태는 재료의 종류, 재단의 방법, 봉제 방법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착장 방식은 인체 위에 1차 조형 복식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착장방향, 고정 방식, 착장방법을 의미한다. 류기주는 인체 위에 1차 조형복식을 착장 후 시각적으로 인지 되는 형태로 DeLong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1차 조형 복식이 인체를 그대로 드러낼 때는 인체 우선형이고 인체 형태보다 1차 조형 복식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여 인체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고 단지 1차 조형 복식의 옷걸이 역할일 때 복식 우선형이다. 복식 우선형은 다시 인체를 과장한 인체 과장형과 인체를 은폐한 인체 은폐형으로 구분된다. 2차 조형 복식은 인체 위에 1차 조형 복식이 여러 가지 착장방법에 따라 인체 위에서 의복의 형태가 갖추어져 입혀진 상태이다. 착장 후 인체와 1차 조형 복식의 관계는 小川安朗의 분류로 2차 조형 복식에 해당한다.

Barthes¹⁰⁾는 의복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영상의복의 구조를 조형구조로, 글로 씌어진 의복을 언어구조로 보았고, 실제 의복의 구조는 제3의 구조로 복식의 제조를 결정했던 행위인 재봉과 재단과 같은 기술적(technologique)구조라고 하였다. 실제 의복의 구조는 재료(matière)와 재료의 변형(ses transformations)의 차원에서 구성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는 여러 제조 행위의 흔적과 제조행위가 완결된, 유형화된 목적이라고 하였다.¹¹⁾ 드레이퍼리 복식의 경우 기술적 구조는 재단과 재봉 대신 사각형의 천(재료)을 인체에 드레이핑 하는 방식¹²⁾(재료의 변형)으로 완성된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 학자로 분류되는 Barthes가 사용한 구조는 “한 현상을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총체¹³⁾”로 이해할 수 있다. Storey¹⁴⁾는 구조주의자에게 의미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구조이고, 구조주의의 과제는 의미의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습들 즉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주의 시각으로 그리스 복식 분석을 위해 인체, 1차 조형 복식, 착장방식, 2차 조형 복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 요소가 이루는 의미의 총합으로서 그리스 복식에 나타난 젠더(gender) 표현 특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성 구분 개념

섹스(sex)는 성차(性差)로 해석되어 생물학적 차이와 본능을 바탕으로 남녀 간의 차이를 유전자나 호르몬 내지는 성기에 따른 생식 기능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에 기초하며, 사회나 문화와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내재된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면 젠더(gender)는 우리말에서 성별(性別)로 해석되기도 하며 성이 인간에 내재된 속성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양육방법에 따라서 학습된 후천적인 성(性)으로 '사회적으로 남성다움 또는 남성 되기와 여성다움 또는 여성 되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젠더는 학습과정을 거쳐 내면화된 성 정체성, 성 역할, 활동, 감정과 관련이 있다. Butler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 이의를 제기한다. Butler¹⁵⁾는 문화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몸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적 성차 개념인 섹스(sex)도 젠더(gender)만큼이나 문화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Butler에게 있어 섹스와 젠더는 맞물려 있다. 여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여성적이라고 분류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시대의 여성이라는 특정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착용자의 몸과 불가분의 관계인 복식은 육체적 성과 사회 규약으로서 복식은 사회 문화적 성인 젠더를 드러낸다는 면에서 Butler의 관점을 뒷받침 한다.

3. 그리스 사회의 특징

성구분과 관련된 그리스 시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속성은 가부장제와 남성에게 허용된 나체 관습이다.

1) 가부장제 사회

그리스는 남성이 주도권을 지닌 가부장제(patriarchy) 사회이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해 도시국가에 등록시키거나, 자식을 버릴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아들만 시민으로 등록되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이란 완전한 참정권을 가진 소수 자유 시민으로 납세 의무와 동시에 공공 생활이나 군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노예나 여성, 외국인들은 시민에서 제외 되었다.¹⁶⁾

그리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였고, 사회적 지위 역시 차별적 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하찮은 존재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고, 어떤 소유물도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여성은 점차 가정에서 머물렀다. 아버지는 딸이 15세가 되면 결혼시킬 수 있었고, 요리, 저장, 양모와 면사 만들기, 가족을 물에 불려 두드리기, 직물 짜기와 이불 만들기, 수놓기, 육아 등의 집안일이 여성의 담당이었다. 그리스 여성은 외출이 드물었고 가족 축제와 종교 축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누군가와 동행해야 했다.¹⁷⁾ 여성은 어머니로서 존경받았고, 도덕적 권위를 행사했다.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 여성과 다르게 스파르타는 여성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허용하였고 튼튼하고 강한 아이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여성을 전략적으로 군사 훈련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켰다.¹⁸⁾

2) 나체 관습

그리스 사회에서 남녀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부분은 나체 관습이다. 남성만 제한적으로 나체가 허용되어 남성의 몸은 보일 수 있는 몸으로 여성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이 되어 위계적 가치가 부여된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차이 즉 젠더를 드러낸다.

'사람들이 나체로 다니는 장소'라는 그리스 용어인 'gymnasion'은 형용사 gymnos '가볍게 입은', '나체의'에서 유래한다. 김복희·오동섭¹⁹⁾는 각종 스포츠 문헌이나 조각품, 도자기 그림에서 보면 '가볍게 입은'이라는 의미보다 '나체'가 더 합당 하다고 지적한다. Pedley는 당시 그리스만 나체를 허용하였고²⁰⁾, Bonfante는 그리스인의 나체는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 그리스 시민과 노예를 구별할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²¹⁾ 왜냐하면 gymnasion에서 나체로 운동하는 것은 순수한 그리스인이며 귀족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나체는 복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gymnasium에서 나체가 허용되기 이전, 초기 그리스 운동선수들은 남성용 속옷인 조마(zoma) 또는 페리조마(perizoma)라는 허리옷(loincloth)을 입었다.²²⁾

기원전 1세기의 작가 Dionysius는 완전한 나체로 경기를 하게 된 계기는 기원전 720년 제15회 올림픽 대회부터 였다고 한다. 당시 스파르타 출신 달리기 선수 Acanthus가 나체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이래로 관습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²³⁾ 제한적이었으나 남성의 나체가 허용되던 관습은 남성 육체를 숭상하는 그리스인의 미의식을 잘 드러낸다. gymnasium은 그리스 예술가들에게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한 탐구의 장이 되었고, 나아가 풍부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사라진다²⁵⁾”는 일원론적 관점이다. 그리스인에게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유일한 현실이다. 그리스인의 육체는 정신의 거울이며, 외양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척도였다. 그리스 예술가는 젊은 신의 완벽한 미나 전쟁 장면에서 그리스인의 용맹성을 표현하기 위해 걸의투 속에 입던 옷을 자주 생략하여 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여지고 이상화된 몸은 남성의 몸에 한한 것이었다. 신체적 선을 구현하는 것은 남성의 몸이었다. 여성의 몸은 드러나지 않고 남성의 몸이 신과 인간 의 완전함과 영웅성을 대표한다.

Ⅲ. 그리스 복식의 형태 구조 분석

1. 인체

인체에 친을 둘러 형태가 완성되는 그리스 복식에서 몸은 봉제의(tailored garment)나 혼합형(composite type)²⁴⁾에 비해 보다 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스 사회에서 육체와 영혼에 대해 보다 널리 받아들여졌던 관점은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혼은 숨 또는 바람과 같은 것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에 머물다가 죽음과 더불어

1) 그리스 남성의 몸

남성 인체는 남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징물이었다. 지중해성 기후와 아고산대²⁶⁾ 기후가 공존하는 환경의 그리스인은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견디기 위해 현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강건함이 요구되었다. 육체적 훈련을 동반하는 군사 교육을 남성성을 나타내는 건강하고 단련된 육체를 추구하였다. 남성성의 형성과 군인의 삶을 준비하는 훈련의 연장선으로 스파르타는 12세부터 한 가지 옷만 걸치도록



<그림 1> 쿠로스
B.C. 600
- <http://www.proprofs.com>



<그림 2> 쿠로스
B.C. 525
- <http://www.boekpraat.nl>



<그림 3> 코레스상
B.C. 580~560
- <http://www.proprofs.com>



<그림 4> 코레스상
B.C. 530
- <http://wamtac.wordpress.com>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한다.

남성미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복식은 단련된 근육을 가진 아름다운 남성의 몸이었다. 그리스인의 몸에 대한 승배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전쟁이 국가의 번영과 존폐를 좌우하였고, 시민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군인으로서 전쟁에 투입되는 시민은 평상시 의무적으로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리스 초기 알카익 시대²⁷⁾ 예술 작품인 쿠로스상과 코레상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상은 나체이고 여성상은 옷을 입고 있다. 남성을 표현할 때는 남성의 몸이 우선시되었지만, 여성을 표현할 때는 옷을 입은 몸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의 체육 활동을 강조하였던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여성의 옷은 거의 대부분 길고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고 있어 몸을 가리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큰 특징은 남성에게만 나체와 노출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조각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²⁸⁾, <그림 2>²⁹⁾의 예가 보여주는 그리스 알카익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남성 환조 입상 쿠로스(kouros)상은 나체로 표현되었고, <그림 3>³⁰⁾, <그림 4>³¹⁾와 같이 여성의 입상인 코레(kore)상은 도릭 키톤을 입고 있다.

2) 그리스 여성의 몸

스파르타 여성을 제외한 그리스 지역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로 집안에 머무르고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활동이 적고, 여성 복식은 이를 반영하듯 긴 형태이다. 그리스 조각에 여성 누드의 등장 시기는 남성 누드에 비해 훨씬 늦은 기원전 5세기 경이고 이는 예술가가 여성의 몸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현실과 관계가 깊다.

알카익 시대 조각가는 여성 조각상인 코레(kore)상을 표현하는데 신체의 모습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Boardman³²⁾은 당시 조각가들에게 여성은 옷걸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술가는 점차적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체를 완전히 가리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옷을 통해서 그 밑에 놓인 몸을

암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카익 말기의 사례를 보면 코레상에 팔다리가 드러나게 된다.³³⁾

쿠로스상과 코레상에 표현된 성별은 우선 옷의 착용 유무에 달려 있다. 남성상인 쿠로스상에는 자연스런 인체가 표현되었고 여성상인 코레상에는 의복의 주름 표현을 통해 인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2. 1차 조형 복식

그리스 복식에서 1차 조형 복식은 복식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직조된 상태의 직사각형의 천이다. 소재인 동시에 1차 조형 복식이며 재질, 색상 및 크기의 차원으로 구성 된다.

소재는 모직물과 마직물이 있으며 모직물은 대부분 염색하였고, 마직물은 4세기 후반 알렉산더 대왕 시기부터 염색하였다. 마직물은 원래의 색을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색상으로 여성복과 남성복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인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프란(safrane)에서 추출한 적황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주 색과 몇 가지 톤이 다른 적색이나 초록색이 존재하였다. 클라미스는 검정색, 초록색과 적색을 사용하였다. 여성복에도 사프란 색(적황색), 자주색 또는 예식용으로 흰색이 사용되었다.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는 색상보다 재질에서 드러나므로 재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남성의 1차 조형 복식

외투 역할을 하는 겹옷인 히마티온과 클라미스는 보온 효과를 고려하여 두툼한 모직물을 사용하였다. 이는 짧고 굵은 양모로 짜서 두껍고 표면에 잔털이 많다. 길고 가는 양모로 짠 표면이 매끄럽고 질이 좋은 일명 '밀레의 모직물(laine de Milet)'³⁴⁾은 히마티온이나 도릭 키톤의 재질이었다. 히마티온도 다른 복식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천이지만 그 크기가 가장 컸다. 폭은 착용자의 키 정도이고 길이는 키의 약 3배 정도였다.³⁵⁾ 히마티온의 재질인 모직물은 그리스 후기로 갈수록 더 얇고 부드러워졌으며, 우아한 드레이퍼리 주름을 얻기 위해 천의 크기가 360 × 150 cm에 이르렀다.³⁶⁾ 계절에 따라 히마티온 재질의 두

깨는 차이가 있고³⁷⁾, 거칠고 두꺼운 모직물은 평민이나 노예가 입었던 에그조미스나 트리봉(tribon)같은 평민의 외투용 재질이었다.

키톤(Chiton, Khiton)은 어원상 '마'를 나타내는 'kitoeth'에서 유래하고, 기원전 6세기경에 유입된 이오니아 튜닉을 의미한다. 그 후에 키톤은 재질에 상관없이 마나 가벼운 모 소재로 된 튜닉 형태인 그리스인의 대표적 복식을 지칭한다. 키톤은 외투 역할을 하는 겉옷인 히마티온이나 클라미스의 재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모직물이나 마를 사용하였다. 여성복과 마찬가지로 남성복도 주름이 잡힌 마가 키톤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키톤의 경우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는 길이에서만 나타났다.

2) 여성 1차 조형 복식

모직물은 그리스 여성의 대표적 복식인 도릭 키톤 재질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모직물은 남성용에 비해 비교적 길고 가는 양모를 써서 더 얇고 부드러웠다. 앞에서 언급한 표면이 매끄럽고 질이 좋은 밀레(Milet) 지방의 모직물은 도릭 키톤에 사용된 고급스런 소재였다. 남성 히마티온은 보다 두꺼운 모직물로 만들어졌다. 그리스인은 모직물을 얇고 비치는 머슬린으로 만들어 여성용 키톤으로 사용하였다. 종교적 행사나 연극을 보러 가는 경우 외에 거의 바깥 활동이 없는 여성에 비해, 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남성의 의복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보온성을 고려하여 더 두꺼운 재질을 사용하였다.

이오닉 키톤은 물 묻힌 손톱으로 마에 주름을 잡아 천이 젖은 상태에서 비틀어 꼬아서 천의 가장자리를 끈으로 묶어, 며칠을 그대로 두어 천에 주름잡힌 효과를 만든 후 사용하였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여전히 몇몇 지방에서 '손톱 주름'이라고 하여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치스러운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의 재질은 마직물 중에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매우 고운 질감을 가진 올이 가는 아마포(byssus)를 사용하였다.

1차 조형 복식의 젠더에 따른 차이는 재질의 두께에서 나타나는데, 야외가 주활동 무대인 남성의 복식은 보온성을 고려한 두꺼운 모직물을 주로 사용하고

실내에서 생활하던 여성은 훨씬 더 가볍고 얇은 소재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소재는 착용하였을 때 비치거나 몸 위에서 드레이핑 되면서 몸의 실루엣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그리스 여성복은 천을 여유분이 생기도록 직조하여 아포티그마(apotigma)를 만들거나 마직물을 주름처리하여 복식의 장식성을 살렸다.

3. 착용방법

1차 조형 복식인 사각형 천을 몸에 드레이핑 하여 입는 방식이 의복의 형태를 결정한다. 여성의 키톤은 윗부분을 접어 늘어뜨리는 아포티그마의 길이나 벨트의 착용 여부 및 위치로 남성복에 비해 디자인이 다양했다. 큰 술 형태인 히마티온의 드레이핑 방식도 남녀 차이가 있었다.

1) 남성의 경우

① 옆선이 반 접힌 형

짧은 형태와 긴 형태가 공존하였다. 짧은형에는 에그조미스(exomis:εξωμυς)와 키톤(khiton:χιτών)이 있는데, 에그조미스는 어원상 exō(밖의)+ōms(어깨)라는 의미로,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쪽 어깨(특히 오른쪽)를 내놓는 옷이다. 에그조미스의 드레이핑 방식은 반으로 접어 윗부분의 한쪽 어깨만 꿰매거나, 단추나 줄로 매듭을 짓거나 피블라(fibula)로 이어서 입고, 허리띠를 둘렀다. 길이는 엉덩이나 허벅지까지 내려온다. 짧은 키톤은 전형적인 남성용 키톤으로, 주로 군인의 외투인 클라미스(chlamys:χλαμύς)나 갑옷 속에 착용하였다.

짧은 키톤을 걸치는 방식은 반을 접어 어깨 모양은 에그조미스와 같이 한쪽 어깨만 피블라로 고정된 형태, 양쪽 어깨를 고정한 형태로 나뉘며, 허리를 벨트로 고정하고 길이는 무릎정도 이다. 에그조미스를 짧은 키톤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키톤은 걸쳤을 때 에그조미스에 비해 품의 여유가 더 있어 앞 주름의 볼륨이 더 크게 생기고 길이도 더 길다. 양쪽 어깨를 고정한 키톤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키톤 위에 한 개나 두 개의 벨트를 둘렀다. 에그조미스나

남성용 키톤을 특징짓는 요소는 옷의 길이이다.

긴 형 키톤은 사각형 천을 반으로 접어 양 어깨를 피블라로 연결하였다. 일상복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예식 때 긴 키톤을 허리띠 없이 착용하였다. 전차 운전자의 경우 폭이 넓어 어깨를 덮어 소매가 있는 효과를 만드는데, 어깨부분은 꿰매거나 끈으로 진동 둘레를 감아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가슴 바로 밑에 벨트를 매어 긴 치마의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② 매듭 진 유동형: 클라미스(Klamys: χλαμῖς)

Klamys는 시인 호머가 살았던 시기의 두껍고 따뜻한 천을 의미하는 클렌(khlain)과 어원을 같이 한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두꺼운 모직물로 된 직사각형의 천을 어깨에 둘러 입는 방한용 옷으로 주로 여행자나 군인이 착용하였다. 클라미스는 몸의 동작에 따라 유동적인 케이프나 숄 형태의 외투이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피블라를 꿰어 고정하거나, 목 앞에서 천의 양끝을 묶어 입었다. 대부분 오른쪽에 매듭이 있어 왼쪽 어깨와 몸 부분이 덮혔다. 오른쪽 팔과 몸이 드러나 활동에 용이하였다. 착용자에 따라 매듭이나 피블라를 반대쪽 어깨에 하거나, 매듭을 몸 중심에 두고 옷자락을 모두 뒤로 넘기기도 하였다.

④ 전체 두르기: 히마티온(Himation: ἱματίον)

Himation은 '옷'을 의미하는 heima의 지소적(指小的)³⁸⁾ 표현으로 '옷' 특히 '드레이퍼리 된 외투'를 의미한다.³⁹⁾ 서민층은 이를 입을 수 없었다. 빈민층은 길이가 짧은 거친 소재의 걸옷인 트리봉(Tribon)을 입었다. 어깨와 팔에 큰 솔처럼 두르는 히마티온은 어깨에서 발목까지 거의 몸 전체를 감쌌다. 히마티온의 특징은 피블라와 같이 고정용 악세서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각형 천을 접지 않고 솔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둘러 입었다. 청빈한 철학자는 맨살 위에 히마티온을 입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였다. 소크라테스나 냉소주의 학파⁴⁰⁾의 철학자들은 긴 길이의 히마티온을 반으로 접어 트리봉처럼 보이도록 착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시민도 히마티온을 반으로 접어 클라미스처럼 착용하였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길이가 짧은 의복은 노동자나 군인의 예에서 보듯이 실용성이나 소박함을 드러낸다.



〈그림 5〉 소포클레스 헬레니즘 시기
- <http://www.artsalive.ca>

〈그림 6〉 파르테논신전 동쪽 소간벽 일부 B.C. 445~438
- <http://www.lokan.dlear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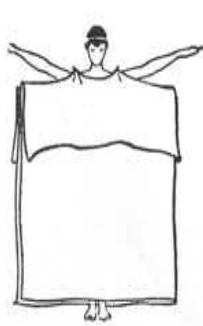
〈그림 7〉 그리스 정치가이며 웅변가 데모스테네스 B.C. 280년경
- *Histoire du costume*, p. 105.

착용 방식을 보면 첫째 가장 단순하게 어깨와 등에 걸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 방식으로 〈그림 5〉⁴¹⁾의 소포클레스 동상을 보면, 왼쪽 어깨를 오른쪽 옷자락으로 덮되 오른손만 나오고 몸 전체를 감싸서 입고 있다. 이는 오른쪽 손놀림을 강조하므로, '연설가의 드레이퍼리' 라고 일컫는다. 세 번째로 〈그림 6〉⁴²⁾의 경우처럼 허리를 둘러 생긴 주름이 벨트처럼 허리를 조이고, 왼쪽 팔을 감싸서 가짜 소매처럼 보이고 왼쪽 어깨 위에서 세로로 옷자락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네 번째 착용법으로 〈그림 7〉⁴³⁾과 같이 세 번째 방식과 유사하지만 오른쪽 어깨, 양쪽 팔, 가슴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다. 이 착용법 역시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어 표현을 돋보이게 하는 팔 동작을 하는 연설가에게 유용하였다. 남성은 가슴을 드러내고 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면서 강조하는 드레이핑 방식으로 히마티온을 착용하였다.

2) 여성의 경우

① 윗단을 늘어뜨려 앞선을 접은 형: 도릭 키톤 (Doric chiton)

도릭 키톤(Doric chiton)은 모직으로 된 직사각형 천을 반 접어 몸에 두르고 발목에서 어깨까지 덮고 남은 천을 어깨 높이에서 밖으로 접어 앞뒤 네 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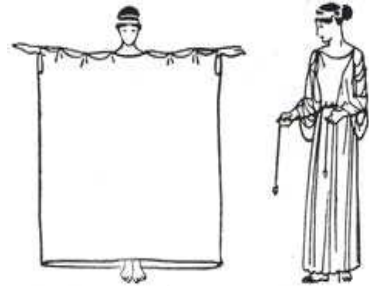
〈그림 8〉 도릭 키톤
윗부분 남는 여분을
접어 만든 아포티그마
- <http://www.arkeo-tr.com>



〈그림 9〉
꽃병 그림
- *Histoire du costume antique*,
p. 163



〈그림 10〉 아테나
B.C. 470
- <http://www.goddess-athena.org>



〈그림 11〉 이오닉 키톤은 앞뒤 두장의
천을 어깨에서 여러 개의 작은 피블라로
연결하고 허리에 허리띠를 둘러
착용하였다.
- <http://www.arkeo-tr.com>

천을 피블라로 고정한다. 사각형 천의 크기와 착용 방식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8〉⁴⁴⁾에서 보듯이 도릭 키톤을 인체에 걸칠 때 의복 길이의 남는 윗부분을 접어 아포티그마가 형성된다. 여성복은 상의에서 접혀져 케이프처럼 내려오는 아포티그마의 크기나 벨트 착용 유무로 옷의 디자인이 다양했다. 뒤쪽에 늘어뜨린 아포티그마는 필요에 따라 머리를 덮는 베일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도릭 키톤은 〈그림 9〉⁴⁵⁾와 같이 한 쪽은 접히고 한 쪽은 열린 비대칭 형태이다. 열린 쪽은 자연스런 주름이 옆선 끝에 잡힌다. 열려진 한쪽 옆솔기 선은 그대로 트인 상태로 입거나 때로 허리부터 밑단까지 꿰매기도 하였다. 이 형태에서 아포티그마를 허리 밑까지 더 길게 하여 〈그림 10〉⁴⁶⁾과 같이 허리에 벨트를 매기도 하였다. 이는 옷이 상하가 분리된 듯한 착시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리스 여성복은 이처럼 아포티그마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를 피하고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② 앞뒤 두장형: 이오닉 키톤(Ionic chiton)

〈그림 11〉⁴⁷⁾와 같이 앞뒤 두 겹의 천을 어깨에서 여러 개의 작은 피블라나 단추로 고정시키고, 허리에 벨트를 한다. 이때 천을 끄집어 올려 벨트 위로 늘어뜨려 콜포스가 형성되어 블라우스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작은 피블라 사이로 어깨와 팔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형태의 세련됨을 더한다. 두

개의 천을 사용하므로, 도릭 키톤보다 폭이 넓어서 폭이 두 팔을 벌린 것의 두 배가 된다. 넓은 폭으로 인해 팔과 팔꿈치까지 주름이 내려와서 마치 소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깨와 팔 둘레에 끈을 묶어 소매 형태로도 만들었다.

③ 온몸을 감싸는 솔 방식: 히마티온(Himation: ἱματίον)

같은 히마티온이라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복과 다른 방식으로 드레이핑 하였다. 남성이 피블라를 사용하지 않는 데 반해, 여성은 종종 피블라로 고정하여 솔처럼 둘러 입거나 〈그림 12〉⁴⁸⁾와 같이 한쪽 어깨에 걸쳐 앞으로 두르며 이오닉 키톤과 함께 입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림 13〉⁴⁹⁾처럼 머리까지 모두 감싸거나 머리는 내놓고 손은 보이지 않도록 둘러 입는 스타일이나 튜닉이 보이도록 히마티온을 한 쪽 어깨만 고정하여 사선으로 걸치기는 하나 옷자락을 길고 내려뜨리는 경우나 안으로 집어넣은 경우,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려 앞치마처럼 보이게 한 형태도 있다. 〈그림 14〉⁵⁰⁾와 같이 멧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남성용 히마티온을 활용하여 입었다. 옷자락이 등 뒤로 가는 남성용 히마티온의 옷 자락을 앞으로 드레이프해서 착용하였다.⁵¹⁾ 기원전 5세기 말경에 여성들은 무거운 히마티온 대신 일명 '코레의 비스듬한 솔'이라고 하는, 착용 방식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



<그림 12> 꽃병 그림
- *Histoire du costume antique*, p. 212.



<그림 13> 히마티온을 두르고 있는 여인상
- *Histoire du costume*, p. 107.



<그림 14> 이오닉 키톤 위 히마티온을 걸친 여인상
- *Histoire du costume antique*, p. 218.



<그림 15> 코레스상 B.C. 520
- <http://deitchman.com>

은 마로 된 긴 술, <그림 15>⁵²⁾와 같은 파로스(pharos)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4. 2차 조형 복식

2차 조형 복식은 인체에 1차 조형 복식이 여러 가지 착장방법에 따라 입혀진 상태이다. 움직이는 몸 위에 입혀진 의복의 형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의복의 형태는 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그리스 드레이퍼리 복식은 Heuzy가 지적한 것처럼 항상 살아 있고 움직이는 옷이다.⁵³⁾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Delong은 인체는 움직임을 통해 그 위에 착용된 의복과 상호작용하며 많은 잠재력을 지닌, 인체의 움직임과 옷감의 무게에 미치는 중력 효과는 시각적 다양함을 제공하고 관찰자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하였다.⁵⁴⁾ 관찰자 입장인 예술가의 눈은 이를 포착하였다. 예술적인 극적인 표현을 위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각은 인체와 의복(1차 조형 복식)의 관계를 보여준다.

류기주⁵⁵⁾는 2차 조형 복식을 착장 후 인체와 1차 조형 복식의 관계로 보고 그리스 복식을 인체 우선형 복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스 복식은 인체의 자연

스런 형태를 존중하여, 인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리스 남성복과 여성복을 다르게 구분하였다. 인체를 드러내는 남성복의 경우 인체 우선형 복식이라 할 수 있으나 여성복은 의복이 몸 전체를 덮고 있어 복식 우선형의 은폐형에 가깝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구조주의 관점에서 2차 조형 복식을 '최종 현상'으로 보고 인체, 1차 조형 복식, 착장 방법의 3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루는 관계의 총체로 보고 해석하면, 각각의 요소가 나타내는 젠더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2차 조형복식 상에 나타난 젠더 차이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복식이 드러내는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1) 남성적 특성: 인체 우선형(Body priority type) - 노출형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은 실용적 용도로 보온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착장 후 옷의 길이는 여성복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림 16>⁵⁶⁾의 예에서 보듯이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작업 현장의 조각가나 노동자, 대장장이, 농부 같은 평민이나 노예가 착용하였던 에그조미스는 엉덩이나 허벅지 길이이다. 그리스 남성이 클라미스나 히마티온 안에 일상



〈그림 16〉
Exomis 테라코타
B.C. 450
- <http://etc.usf.edu>



〈그림 17〉 파르테논 서쪽 프리즈
B.C. 443~438
- <http://en.wikipedia.org>

적으로 착용하였던 짧은 키톤은 허벅지에서 무릎길 이이다. 에그조미스와 키톤은 옆선이 꿰매어져 있지 않아 역동적인 동작을 할 때에 허벅지나 혹은 엉덩 이까지 쉽게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술가는 당대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상미를 구현하기 위해 남성 누드를 선호하였다. 인물의 용맹 함을 드러내고자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신화 속 인물 이나 전설적 인물을 표현할 때 그리스 예술가는 키 톤을 자주 생략하고 남자의 단련된 몸 위에 군인을 상징하는 외투인 클라미스를 입힌다. 〈그림 17〉⁵⁷⁾의

예와 같이 착용자가 말을 타고 달릴 때 양쪽 옷자락 은 바람에 휘날려 사다리꼴을 만든다. 이러한 클라미 스가 바람에 날리는 효과로 몸의미를 극대화 시키 면서, 인물의 역동적 움직임을 강조하였다. 예술 작 품에서 남성의 의복은 단련된 몸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장신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치관습이 존재하였던 그리스 사회에서 몸은 이 중적 가치를 갖는다. 남성의 몸은 전략적으로 이용되 어 노출이 허용되었다. 반면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은 은폐되어 있고 표현되지 않았다. 남성의 몸은 이상화되어 '보여지는 몸'이었고 여성의 몸은 드러나지 않은 '가려진 몸'이었다. 몸에 대한 이와 같은 구별로 인해 의복의 착용여부는 생물학적 성차 를 넘어 사회적 성, 젠더(gender)를 드러낸다.

예외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스파르타 여성은 〈그림 18〉⁵⁸⁾의 예에서 보듯이 남성과 같은 짧은 키 톤을 착용하였다. 법에 의해 스파르타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위에 견디도록 옷을 얇게 입도록 정해 져 있었다. 스파르타는 정치적, 우생학적 목적으로 여성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건강한 어머니를 통 해 미래의 군사가 될 건강한 소년을 출산하게 하고 자 하였다.⁵⁹⁾ 스파르타 여성은 군사 훈련이나 스포츠 에 참여하면서 남성처럼 활동하기에 편리한 짧은 의



〈그림 18〉 달리는 소녀의 청동상 B.C. 520~500 스파르타 출처로 추정
- <http://www.bbc.co.uk>



〈그림 19〉 아르테미스여신 B.C. 4~2세기
- <http://matricien.org>



〈그림 20〉 부상 입은 아마존 B.C. 450~425 재현작품
- <http://www.metmuseum.org>

복이나 나아가 나체가 허용되었다.

Plutarque에 의하면, 스파르타 여성의 키톤 옆자락이 꿰메어져 있지 않아 걸을 때마다 허벅지를 드러내서, 스파르타 여성들을 phainomérides 즉 '허벅지를 보이는 여자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⁶⁰⁾ 스파르타 여성은 몸의 노출에 대한 수치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 Euripides는 Andromaque에서 노인 펠레의 입을 빌어, 집을 비우고 다리를 드러내며 꿰메지 않은 키톤을 입고 남자와 같이 경기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⁶¹⁾ Euripides의 스파르타 여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당시 여성이 몸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 외에 예술 작품 속의 '사냥의 여신-아르테미스'〈그림 19〉⁶²⁾와 전설속의 '아마존 민족'〈그림 20〉⁶³⁾은 짧은 키톤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모두 여자로서 남자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다. 주로 집안에서 가정일을 담당하고 외부활동이나 출입이 제한되었던 당시 여성과 다르게 스파르타 여성은 남성과 같이 스포츠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실제 인물이 아니지만 남성의 영역인 사냥을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나 전쟁에 참여하는 아마존 여인은 대다수 그리스 여성과 다른 젠더 양상을 드러낸다. 사회적 구분에 따라 남성성을 지닌 여성은 복식

에서 남성적 특징인 노출과 짧은 의복이 허용되었다.

2차 조형 복식에서 드러난 남성적 특징은 단련된 육체의 노출이다. 시각적으로 단련된 남성의 몸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척박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음으로서 추위에 강함을 나타내준다. 남성 2차 조형 복식에서 젠더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남성의 몸으로 양식화하고 있다.

2) 여성적 특성: 복식 우선형(Clothing priority type) - 은폐형

여성복의 형태는 길이가 길고 몸 전체를 덮고 있다. 모직물이나 마직물의 다소 뻣뻣한 질감 특성상 인체 우선형보다는 복식 우선형의 인체 은폐형 복식에 더 가깝다. 복식이 인체 전체를 덮고 몸의 실루엣을 은폐시키기 때문이다. 도릭 키톤은 아포티그마나 콜포스로 인해 남성복에 비해 디자인의 다양성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보다 더 가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스 조각가는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옷의 장식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여성의 몸은 항상 간접적이고 부분적 방식으로 표현된다. 남성복은 남성의 몸을 드러내거나 몸을 장식하는 용도가 있다면, 여성복은 1차 조형 복식의 여분의 길이로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 남성복에 비해 형태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신체 단련의 일



〈그림 21〉 일명 '간청하는 바르베리니'라고 하는 앉아있는 여인상 B.C. 5세기 후반기 작품의 로마 재현품
- *Plis et Drapé*, p. 20.



〈그림 22〉 사모트라케의 승리 여신 니케 헬레니즘 시대작품
- <http://iloveparis.tistory.com>



〈그림 23〉 루도비시 왕좌의 비너스 B.C. 460년 경
- <http://lib.haifa.ac.il>

환으로 몸이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옷을 ‘가볍게’ 입던 스파르타 여성과 대조적으로 아테네 여성은 커다란 크기의 사각형 천을 직조하여, 아포티그마의 길이와 벨트의 착용 여부나 위치로 복식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이오닉 키튼의 재질로 전통적 방식으로 주름 처리된 마직물이 사용되었다. 몸은 의복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재질적 특성으로 인해 몸의 곡선이 동작에 따라 부분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그림 21>⁶⁴⁾에와 같이 예술가는 얇은 재질감을 극대화시켜 몸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하게 하여 실루엣이 드러나게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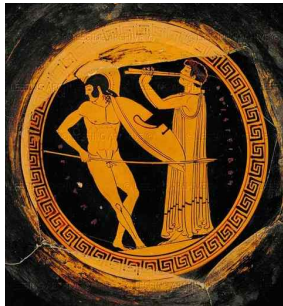
다. 다른 방식으로 복식 속에 감춰진 여성의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22>⁶⁵⁾, <그림 23>⁶⁶⁾과 같이 바람 효과나 물에 젖어 있는 설정으로 의복을 밀착되게 하여 인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때 의복의 얇은 재질감을 관능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초기 조각가들은 여성의 몸을 표현하기보다 복식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여성 2차 조형 복식은 인체를 전체적으로 덮으면서 몸을 은폐시키고 여분의 천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표 1> 그리스 복식의 형태 구성 요소에 나타난 남성 여성 젠더 표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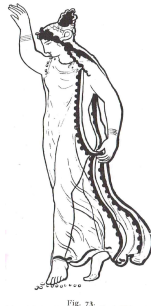
그리스 복식 이루는 요소	남성 특성	여성 특성	남녀공통 특성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러내 보이는 몸 • 단련된 근육질의 몸 • 이상적 시민이자 군인의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속에 은폐된 몸 • 제한적 외부활동 • 의복이 입혀진 몸 •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론 • 육체-정신의 거울 • 외양- 판단 척도
1차 조형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두꺼운 모직물. • 색상-적색, 초록색, 검정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얇고 비치는 소재, 머슬린 • 색상-자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얇고 고운 결의 모직물, 주름 처리된 마직물 • 색상-사프란의 적황색, 흰색
착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선이 반 접힌 짧은 형-에그조미스, 키튼, 긴형- 키튼 • 매듭 진 유동형-클라미스 • 전체 두르기 히마티온- 피볼라 없이 다양한 드레이핑 방식 존재 (예: 오른손 강조된 ‘연설가의 드레이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선이 반 접힌 형- 도릭 키튼 • 윗단을 늘어뜨려 옆선을 접은 형 - 도릭 키튼 • 앞뒤 두장형 -이오닉 키튼 • 온몸을 감싸는 솔 형태 히마티온- 다양한 드레이핑 방식 존재. (예: 머리부터 모두 감싸거나 손이 보이지 않도록 둘러 입는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선이 반 접힌 형- 긴 키튼 아포티그마가 없는 형태 • 앞뒤 두장형 - 이오닉 키튼 • 히마티온 • 클라니드- 얇고 가벼운 모 소재로 된 히마티온의 변형
2차 조형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우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그조미스, 짧은 키튼 무릎 길이로 다리 노출시키고 활동성을 증진시킴 - 클라미스 조각가의 ‘바람 효과’로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을 노출하는 동시에 인물의 역동성 표현함 - 히마티온 오른쪽 팔과 손놀림을 강조하는 드레이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 우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릭 키튼 아포티그마의 길이와 허리띠의 유무에 따라 여러가지 스타일 형성 (아포티그마가 짧을 때 짧은 케이프 같이 연출, 길게 엉덩이까지 내려올 때는 허리띠를 하여 마치 상하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디자인) - 조각가들은 바람이나 물에 젖은 효과로 천이 몸에 붙어 여성 몸을 간접적으로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맞춘 재봉과정 없음 • 유동적 개별적 구조 • 자연스런 드레이핑

3) 남녀 공통 특성: 복식 우선형

그리스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착용하는 대표적 복식은 긴 키톤이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짧은 키톤을 착용하였고 예식의 엄숙함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긴 키톤을 착용하였다. 반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긴 키톤을 착용하였다. 긴 키톤은 그리스 남성들 사이에서 평상복으로 잠깐 유행되기도 하였지만, 보통은 음악가, 배우 또는 특정 직종의 전차 운전자, 제물을 바치는 사제, 중장년층, 신화의 인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아티카⁶⁷⁾의 항아리에 그려진 음악가들이나 <그림 24>⁶⁸⁾의 루브르 박물관 G136으로 분류되는 술잔의 원형 장식 속에 표현된 쌍관 피리 연주자는 긴 키톤을 입고 있다. 또 다른 남녀의 공통 복식으로 가벼운 모 소재로 된 히마티온의 변형된 형태인 클라니드(chlanide)가 있다. 우아한 남성과 여성이 클라니드를 착용하였다. Losfeld는 Thucydides⁶⁹⁾의 페로폰네스 전쟁에 관한 글에서 긴 키톤은 부를 나타내는 동시에 무기력하고 여성화된 삶의 상징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⁷⁰⁾ 이는 남성이 여성과 같은 긴 키톤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준다.



<그림 24> 루브르 박물관
G136 B.C. 5세기 초
- <http://pinterest.com>



<그림 25>
꽃병 그림
- *Histoire du costume antique*,
p. 151.

여성의 경우 흔하지 않으나 아포티그마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도릭 키톤을 항아리 <그림 25>⁷¹⁾에 표현된 숲속의 요정에서 볼 수 있다. 요정이 벌어진 두 옷자락을 손으로 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스

파르타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스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몸, 1차 조형 복식, 착장 방식, 몸에 입혀져 완성된 2차 조형 복식에 따라 나타난 젠더 표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결론

가부장제 사회인 그리스 시대, 드레이퍼리 복식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젠더(gender) 특성을 밝히고자 구조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인체, 1차 조형 복식, 착장방식, 2차 조형 복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몸에 대한 노출과 은폐의 차이로 표출된다. 남성적 특징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노출에 의해 '드러난 몸'으로 나타나고 여성적 특징은 의복이 착용되어 '은폐된 몸'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나체 관습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강인한 남성성의 표출로 남성의 몸은 노출이 자연스러웠다. 반면 긴 복식을 항상 착용한 그리스 여성은 스파르타를 제외한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공공장소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므로 여성의 몸은 의복의 형태로 또한 사회적 관습의 제약으로 은폐되어 있었다. 관습과 규범을 통한 몸에 대한 이중적 구분으로 인해, 성차(sex)가 있는 생물학적 몸에 사회적 몸 즉 젠더(gender)가 덧입혀진다.

둘째, 재질인 동시에 1차 조형 복식인 사각형의 천에 나타나는 젠더의 차이는 색상보다는 재질상의 차이로 나타났다. 남성복의 재질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들의 실용적 용도에 맞게 두꺼운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여성복은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 맞게 보온보다는 가벼운 소재에서 풍기는 우아함을 더 중시하였다.

셋째, 착장 방식과 착장 후 옷의 길이에 젠더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용 키톤과 남성의 겉옷인 에그조미스와 클라미스와 같은 남성 전용 복식의 특징은 길이가 짧아 다리를 드러내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일종의 기능복이다. 남성용 긴 키톤은 예복이거나 특수

한 직업이나 연장자의 의복이다. 보통은 음악가나 배우 같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차 운전자 같은 특정 직업인이거나, 제물을 바치는 사제들이나 민간의 고위층 또는 신화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히마티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둘러 입었고, 오른손만 내놓고 모두 감싸면서 손 동작을 강조하는 연설가의 드레이퍼리 방식이나 오른쪽 어깨와 팔이 드러나도록 걸쳐 입어 상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히마티온은 발언권이 있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성 히마티온은 온몸을 다 감싸고 속에 키튼을 입고 한쪽을 피블라로 고정시켜 사선으로 드레이핑시켜 착용하였다.

넷째, 1차 조형 복식이 인체에 착용된 상태인 2차 조형 복식은 몸, 1차 조형 복식, 착장방식 요소의 총체이다. 따라서 2차 조형복식 상에 나타난 젠더 차이는 복식이 드러내는 최종적 몸에 대한 차이이다. 2차 조형 복식에 나타난 남성적 특징은 인체의 노출이다. 장식이 배제된 짧은 길이의 복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인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반면 여성복의 형태는 길이가 길어 몸 전체를 덮고 있다. 여성복은 아포티그마나 콜포스로 인해 남성복에 비해 디자인의 다양성이 엷보이고 결과적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더욱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성의 2차 조형 복식은 여성의 인체를 항상 간접적이고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남성복이 남성의 몸을 드러내거나 몸을 돋보이게 하는 용도가 있다면, 여성복은 인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복식 자체에 장식적 요소를 더해 복식의 형태에 주목하게 한다. 남성복이 인체 우선형이라면 여성복은 복식 우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규약 중의 하나인 복식에 드러나는 성 구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 외에 사회문화적 성별 개념인 젠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 드레이퍼리 복식은 단순한 사각형의 천에서 출발하지만, 젠더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몸에 대한 당시의 시각 차이와 분리된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다. 복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나체관습은 몸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남성과 여성의 몸을 구분한다. 보

여지는 몸과 가려진 몸 사이에 생물학적 성차를 넘어선 사회적 성별 개념인 젠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재질인 동시에 1차 조형 복식인 사각형의 천은 외부활동이 많은 남성용으로 두껍고 보온성이 좋은 모직물이 사용되었고, 집안이 주요 활동 영역인 여성은 좀 더 얇은 모직물이나 마직물을 사용하였다. 인체 위에 착용된 2차 조형 복식 역시 이러한 사회적 성별인 당시 젠더 구분을 반영하고 있다. 활동성을 강조하여 움직임에 적합한 남성복은 몸의 노출이 허용되었던 당시 관습과 남성 몸에 대한 이상화가 드러나 있다. 반면 여성의 몸이 은폐되어 있고 남성복에 비해 장식성이 가미되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성복은 외부에 몸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수동적이었던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Butler, Judith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p. 147.
- 2) 이민선, 김민자 (1995), 고대에서 근대까지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대한 사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2), p. 344.
- 3) 최나리, 우주형 (2007),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복식*, 57(2), pp. 143-154.
- 4) 김정연, 제갈미, 이연희 (2010),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60(7), pp. 1-13.
- 5) 이경아, 금기숙 (201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스테레오타입 여성성, *복식문화연구*, 19(2), pp. 430-448.
- 6) 류기주 (1990),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板倉壽郎 (1989), *복식미학*, 이현숙 역, 서울: 경춘사, p. 83.
- 8) 미학 예술학 사전 (1989), *미학 예술론의 역사*, 서울: 미진사, pp. 184-185.
- 9) 류기주, *op. cit.*, p. 36.
- 10) Barthes, Roland (1998), *모드의 체계*,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 연구소 역, 서울: 동문선, p. 22.
- 11) Barthes는 패션 잡지의 패션 사진과 설명에 대하여, 사진이나 그림으로 제시되는 의복을 영상 의복(vêtement-image)으로, 설명에 대하여 글로 표현된 의복을 글로 쓰여진 의복(vêtement-écrit), 실제 의복으로 구분하였다. 영상 의복의 재료는 형태, 선, 면, 색채이고, 관계는 공간적이며, 조형적 구조를 이루는 반면 글로 쓰여진 의복의 재료는 단어적이고 관계는 통사적이며, 언어 구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Barthes에게 모드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조를 따로 따

- 로 철저히 연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그리스 트레이퍼리 복식에서 키톤은 필요에 따라 반을 접거나 두 개의 천을 이은 옆선을 꿰매는 공정이 들어가는 하나, 이는 제한적인 부분이라 간주하였다.
 - 13) 주경복 (1996),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와 구조주의자의 길*,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 61.
 - 14) Storey, John (1995), *문화 연구와 문화 이론*, 박모 역, 서울: 현실 문화연구, p. 111.
 - 15) Butler, Judith, *op. cit.*, p. 99.
 - 16) Spivey, Nigel (1998), *그리스 미술*, 양정무 역, 서울: 한길아트, p. 141.
 - 17) *Ibid.*, p. 66.
 - 18) 김복희 (2002), 스파르타 시대 여성체육의 정치·사회적 의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2), pp. 1-11.
 - 19) 김복희, 오동섭 (2001),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의 의상과 나체경기, *한국체육학회지*, 40(2), pp. 21-31.
 - 20) Pedley, John Griffiths (2004), *그리스 미술*, 조은정 역, 서울: 예경, p. 220.
 - 21) Bonfante, Larissa (1989), Nudity as a costume in classical art,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93(4), p. 543.
 - 22) 김복희, 오동섭, *op. cit.*, p. 21.
 - 23) Sweet, Waldo E. (1987), *Sports and recreation in ancient Gree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27.
 - 24) Horn, Marilyn J. & Gurel, Lois M. (1995), *의복: 제 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p. 52. Horn과 Gurel은 의복을 짜거나 디자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복장 양식은 오직 봉제의(tailored garment), 권의(draped garment),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혼합된 혼합형(composite type)의 세 가지 타입으로 진화하였다고 하였다.
 - 25) Descamps, Marc-Alain (1988), *Ce corps hai et adoré*, Paris: Tchou, pp. 37-38.
 - 26) 아고산대(subalpine zone, 亞高山帶): 높은 산이 많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산악지대(山岳地帶)라고 하며, 높은 쪽은 고산대(高山帶), 그보다 낮은 지역은 아고산대(亞高山帶)도 구분한다. 자료검색일 2013. 2. 2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907&docId=1015063&mobile&categoryId=2907>
 - 27) 그리스 예술을 시기별로 분류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알카익 또는 호메릭 시대(Homeric or Archaic Period: B.C. 680~480), 고전시대(Classic Period: B.C. 480~330), 헬레니스트 시대(Hellenistic Period: B.C. 330~146)으로 구분 된다.
 - 28) 자료 검색일 2012. 5. 5, <http://www.proprofs.com/flashtcards/cardshowall.php?title=greek-art-midterm>
 - 29) 자료 검색일 2012. 5. 5, http://www.boekpraat.nl/Genres/Leuke_wetenschap/Blink___Intuities
 - 30) 자료 검색일 2012. 5. 5, <http://www.proprofs.com/flashtcards/cardshowall.php?title=greek-art-midterm>
 - 31) 자료 검색일 2012. 5. 5, <http://wamtac.wordpress.com/art-history/greek-art-900-30-b-c-e>
 - 32) Boardman, John (2003), *그리스 미술*, 원형준 역, 서울: 시공사, p. 90.
 - 33) Pedley, John Griffiths, *op. cit.*, pp. 219-220.
 - 34) 프랑스로 Milet, 그리스어로 Μίλητος(Milētos)로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의 옛도시 중의 하나.
 - 35) 이정옥, 최영옥, 이경순 (2003), *서양 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 62.
 - 36) Cosgrave, Bronwyn (2002), *Histoire de la mode*, Paris: Maxi-Livres, p. 47.
 - 37) Losfeld, Georges (1991), *Essai sur le costume Grec*, Paris: Edition du Boccard, p. 137.
 - 38) 지소적(指小的): 같은 종류로서 보다 작은 형태를 나타내는 가리키는 말.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치마를 의미하는 jupe가 지소적 형태인 jupette로 쓰일 때, '작은 치마' 또는 '아동용 치마'를 의미한다.
 - 39) Heuzey, Léon (1922), *Histoire du costume antique*, Paris: Champion, p. 136.
 - 40) Losfeld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시대적 배경 및 텍스트의 문맥상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창설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학파, 견유학파(犬儒學派)·시니시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파 사 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극기적인 철학의 일면을 계승하여 덕(德)만 있으면 족하다 하여 정신적·육체적인 단련을 중요시하였으며, 쾌락을 멀리하고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였다.
 - 41) 자료 검색일 2012. 12. 27, <http://www.artsalive.ca/en/thf/histoire/auteurs.html>
 - 42) 자료 검색일 2012. 12. 27, <http://www.lookandlearn.com/history-images/XB094608/Organisers-and-ergastines?img=1>
 - 43) Boucher, François (1983), *Histoire du costume*, Paris: Flammarion, p. 103.
 - 44) 자료 검색일 2013. 1. 1, <http://www.arkeo-tr.com/khiton-χιτών>
 - 45) Heuzey, Léon, *op. cit.*, p. 163.
 - 46) 자료 검색일 2013. 1. 1, http://www.goddess-athena.org/Museum/Sculptures/Alone/Mourning_Athena_x.htm
 - 47) 자료 검색일 2013. 1. 2, <http://www.arkeo-tr.com/khiton-χιτών>
 - 48) Heuzey, Léon, *op. cit.*, p. 212.
 - 49) Boucher, François, *op. cit.*, p. 107.
 - 50) Heuzey, Léon, *op. cit.*, p. 218.
 - 51) Bequieux, Michèle (1974), *Le costume antique et médiéval*, Paris: PUF, p. 52.
 - 52) 자료 검색일 2012. 12. 31, <http://deitchman.com/mceneillslides/units.php?unit=%20Greek%20Sculpture>
 - 53) Boucher, François, *op. cit.*, p. 85.
 - 54) Delong, Marilyn Revell (1997), *복식 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 역, 서울: 이즈, p. 47.
 - 55) 류기주, *op. cit.*, p. 65.
 - 56) 자료 검색일 2012. 5. 7, http://etc.usf.edu/clipart/16300/16381/exomis_16381.htm

- 57) 자료 검색일 2013. 1. 8, http://en.wikipedia.org/wiki/Parthenon_Frieze
- 58) 자료 검색일 2012. 12. 31, http://www.bbc.co.uk/history/ancient/greeks/greek_olympics_gallery_06.shtml
- 59) 김복희, *op. cit.*, p. 5.
- 60) Heuzey, Léon, *op. cit.*, p. 153.
- 61) *Ibid.*
- 62) 자료 검색일 2012. 12. 24, <http://matricien.org/matrixcat-religion/paganisme/artemis>
- 63) 자료 검색일 2012. 5. 7, <http://www.metmuseum.org/toah/works-of-art/32.11.4>.
- 64) Potvin, Manon & Decamps-Lequime, Sophie (1991), *Plis et Drapé*, Paris: Louvre, p. 20.
- 65) 자료 검색일 2013. 1. 8, <http://iloveparis.tistory.com/41>
- 66) 자료 검색일 2013. 1. 8, http://lib.haifa.ac.il/collections/art/mythology_westart_aphrodite.html
- 67) 아테네가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한 지방
- 68) 자료 검색일 2013. 1. 8, <http://pinterest.com/pin/97531148151672895/>
- 69) 그리스의 역사가(B.C. 460-B.C. 395) (Greek Θουκυδίδης, Thoukydídēs)
- 70) Losfeld, Gorges, *op. cit.*, p. 103.
- 71) Heuzey, Léon, *op. cit.*, p. 151.